

TEKTON INVEST

Biweekly Report

24 Feb 2025

중국 전기차 1위 BYD의 자율주행 전략

Summary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자율주행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고사양 모델은 물론 10만 위안 이하의 경형 모델까지 올해 출시되는 전체 라인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별도의 가격 인상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BYD는 지난해 424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그 중 42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율주행을 탑재한 BYD의 전기차 판매량이 가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Industry

1위 전기차 기업의 자율주행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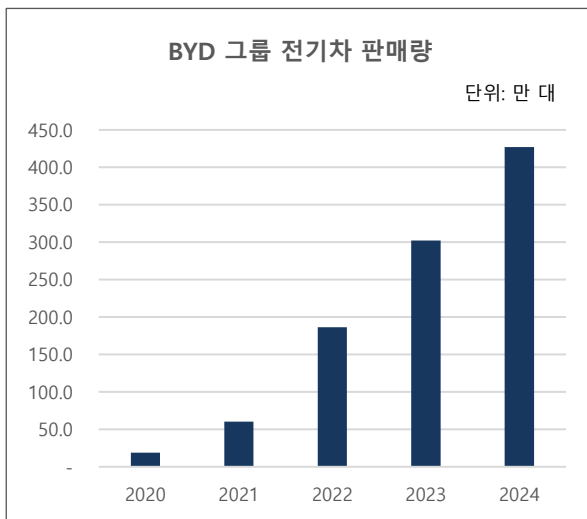
2월 10일 중국 전기차 기업 BYD社は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 'God's Eye(天神之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점은 보편성에 맞춰졌습니다. 10만 위안 이하의 경형 모델까지 현재 판매되는 21개 모델 전체에 대해 올해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없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왕첸푸 회장은 2~3년 내 고급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필수 기능이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판매량 증가 기대

BYD는 2022년부터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424만 대**(BEV 176만, PHEV 248만)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내수기반에서 해외로 확장을 지속('24년 해외판매 42만 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본격 적용하여 잠재 수요 공략을 가속한다는 전략입니다. JP Morgan은 최근 보고서에서 BYD의 전기차 판매 전망을 '25년 550만 대, '26년 650만 대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 정부 차원의 준비도 활발

중국은 2024년 6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도시에서의 **Level 3**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베이징 시는 Level 3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차량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사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고급 자율주행 시스템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 BEV와 PHEV 합계 기준.

출처: BYD

Value Chain

BYD
 주가 +35.49% YTD
 시가총액 220조원



BYD Company Limited (002594:SZ) 최근 3년 주가 흐름

출처: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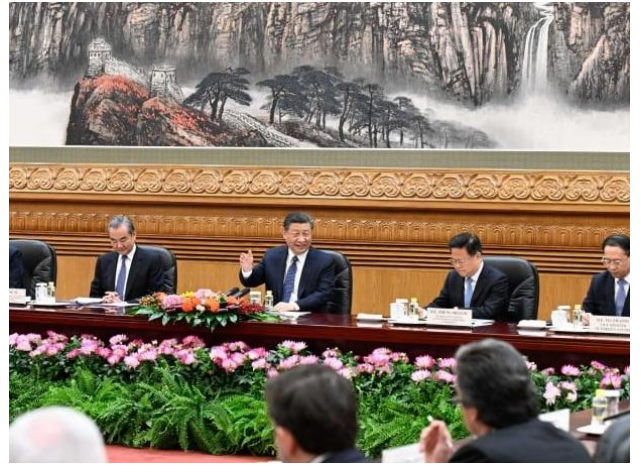
**BYD의 자율주행
 보편화 전략**

BYD는 자율주행 보편화를 위해 God's Eye 시스템을 A/B/C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부품인 라이다(LiDAR)의 탑재량을 달리하여 원가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중저가 모델에 적용되는 'God's Eye C'의 경우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게 되지만, 고속도로 주행과 자동주차 등 주요 자율주행 기능이 동일하게 구동됩니다. 또한 라이다는 물론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주요 부품들을 자체 제작 및 현지 조달하여 비용 구조를 효율화했습니다. 양산 본격화에 따라 하드웨어 공급망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ey Insight

**6년만의 민영기업
 심포지엄 개최**

지난 17일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의 민영기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행사입니다. 산업별 주요 기업들의 대표자가 참석에서 시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을 위해 민영기업이 더욱 성장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 AI 기술 경쟁에 직면한 중국이 다시금 민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태도로 풀이됩니다.



출처: SCMP

**중국이 주목하는
 핵심 기술**

BYD도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왕첸푸 회장은 Huawei社, CATL社, Xiaomi社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함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중국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 대비 **3~5년** 앞서있다고 설명하며, 기술 혁신에 매진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등과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Strategy

**BYD - 자율주행
 기술력 부각**

BYD는 자율주행 R&D에 5천명 이상을 투입하여 기술 발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200만km 주행 데이터를 학습했고, 올해는 1.5억km로 학습량이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본격 상용화되며 BY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